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4.11.4

1 추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1W	1M	3M	6M	2024E	2025E	2024E	2025E	2024E	2025E	
KOSPI	-1.6	-1.1	-5.0	-5.0	10.2	8.3	0.9	0.8	2.3	2.5	
통신업종	-0.2	3.8	7.8	15.5	9.6	8.6	0.7	0.7	5.6	5.8	
SK텔레콤	-0.9	2.5	5.2	11.8	10.2	9.8	1.0	1.0	6.2	6.4	
KT	0.2	11.4	14.0	28.0	9.3	7.7	0.6	0.6	4.6	4.9	
LG유플러스	0.8	3.5	-0.3	2.7	7.6	7.2	0.5	0.5	6.4	6.4	
AT&T	1.3	-0.3	14.2	31.5	10.0	9.9	1.4	1.3	5.0	5.1	
Verizon	-0.0	-8.2	1.0	6.2	9.0	8.8	1.8	1.6	6.5	6.6	
T-Mobile	-1.4	7.3	18.3	35.4	23.7	20.8	4.1	4.3	1.3	1.6	
NTT	1.4	0.0	-3.6	-13.5	10.9	10.1	1.2	1.1	3.6	3.7	
KDDI	0.7	3.3	8.8	7.6	13.7	12.6	1.8	1.7	3.1	3.2	
Softbank	2.4	5.8	13.9	15.0	44.7	27.7	1.1	1.1	0.5	0.5	
China Mobile	-0.7	-7.0	-2.9	2.7	10.1	9.7	1.0	1.0	7.1	7.7	
China Unicom	0.0	-1.6	0.1	15.2	9.4	8.6	0.5	0.5	6.4	7.4	
China Telecom	-3.3	-4.1	-3.5	4.7	11.3	10.5	0.8	0.8	6.4	7.1	

SKT 42.4% (-0.1%p WoW, -0.1%p MoM)
KT 48.9% (+0.2%p WoW, +1.3%p MoM)
LGU+ 34.9% (-0.0%p WoW, -0.0%p MoM)
KT 외국인 순매수 기록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1월 첫째 주 통신업종 추가지수는 KOSPI 대비 +1.4%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10/31일 미디어로그는 양질의 매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어려움을 이유로 천리안 서비스 종료
LGU+와 GS건설은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1단계 실증 사업 성공
국내 기관은 SKT, LGU+ 순매수, KT 순매도, 외국인인 KT 순매수 SKT, LGU+ 순매도

금주 전망

10/5일 KT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10/6일 SKT, 10/8일 KT, LGU+ 실적발표
KT는 컨센서스 상회, SKT와 LGU+는 컨센서스 부합 전망. KT는 임금단체협상 조기 타결 기저효과 반영 예상
10/5일 KT는 주주가치 제고 계획 발표 예정, 최근 진행 중인 조직개편을 통한 수익성 개선 전략 언급 전망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무산 영향으로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 약 9,024억원으로 8년만에 최저치 기록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7	28	29	30	31 2025년도 예산안 공청회	1	2
3	4	5 KT 밸류업 공시	6 SKT 3Q24 실적발표	7	8 KT, LGU+ 3Q24 실적발표	9

3 주간 뉴스

▶ 밸류업 외치는 이통사, 주주가치 제고 동력 (전자신문)

- 11/5일 KT는 자율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할 예정
- 마이크로소프트와 AI 분야 전방위 협력 방안 등 AICT 기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 비전 및
- 최근 진행 중인 인력 재배치 등 조직개편을 통한 본사 수익성 개선 전략 언급 기대
- ⇒ 10/24일 SK텔레콤은 통신3사 처음으로 밸류업 계획을 공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과 AI 비전 포함
- ⇒ LG유플러스 역시 연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되나, 서프라이즈 요인은 제한적

▶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안 내놔...핀셋 조율 시도 (ZDNET Korea)

- 여당과 야당 모두 단통법 폐지에 뜻을 모은데 이어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며 본격적인 폐지 논의 전망
- 2024년 6월 여 의 단통법 폐지법안 발의에 이어 지난 10월 22일 야당의 법안 발의
- 공통점은 단통법 전면 폐지 및 공시지원금 제도 삭제, 선택약정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
- ⇒ 차이는 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여부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 금지, 시장 사후관리 책무 주체 등
- ⇒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질 발판은 마련됐으나, 이해관계자들과 향후 시장에 대한 분석 필요

▶ "조금 늦지만"...LGU+, '익시오' 완성도 높인다 (디지털데일리)

- 10월 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중이던 LGU+ AI 에이전트 'ixi-O' 11월 내 출시 예정
- 완성도를 위해 12월까지 출시를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11월 초에서 중순 출시 선택 단계
- 아이폰 통화녹음 및 요약, 통화 내용 실시간 자막, 전화 대신 수신,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등 제공 예정
- ⇒ 애플은 iOS 18.1 이후 음성 고지 후 통화녹음이 됐으나, 익시오 출시 이후 고지없는 녹음 가능
- ⇒ 이미 고지없는 통화녹음을 지원하는 SK텔레콤의 에이닷 전화로 LGU+ 이용자들의 기대 증가

▶ 내년 주파수 할당대가 예산안 9024억원...8년세 최저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 약 9,024억원으로 8년만에 최저치 기록 전망
- 2024년 예산 수입인 9,152억원보다 130억원가량 줄어든 규모로 2017년 이후 최저 규모
- 주파수 할당대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 합산 지출의 약 56%
- ⇒ 세입 예산 감소는 제4이통통신 사업 취소 영향이 크며 3.7~4.0 GHz 대역 신규 할당도 연기
- ⇒ 정부의 주파수 수입 지속 감소에 따른 2025년도 과도한 재할당 대가상징 우려

▶ 자회사 인력 확보 나선 KT... "전출신청 연장, 추가 설명회" (뉴스1)

- 통신 인프라 운용 및 관리 인력 전출 희망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접수 기간 연장
- 당초 10/28일 종료로 예정된 신청 접수는 11월 4일로 연장, 권역별 설명회 진행 예정
- AICT 전환을 위해 3,700여명의 본사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11/4일까지 희망퇴직 접수
- ⇒ KT새노조 집계에 따르면 전출 희망 인력은 약 1,300명으로 자회사 설립까지 남은 기간은 2달
- ⇒ KT는 김영성 대표 부임 이후 지속적인 조직개편 및 저수익사업 합리화 전략 진행 중

▶ SKT, 삼성전자와 AI로 5G 기지국 성능 최적화 (Bizwatch)

- SKT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5G 기지국 품질 최적화 기술을 상용망에 적용 예정
- SKT는 지역마다 상이한 5G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을 활용해 최적의 파라미터 도출
- 이번 실증에 사용된 '네트워크 파라미터 최적화 AI 모델'은 최적화에 투입되는 리소스를 효율화
- ⇒ SKT는 AI 기술이 자동으로 기지국 전력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고도화 추진 중
- ⇒ SKT는 이번 기지국 품질 향상을 포함, 네트워크 전력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 AI 기술 확대 적용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4E	2025E	2024E	2025E	2024E	2025E	2024E	2025E	2024E	2025E	2024E	2025E	
한국	SK텔레콤	57,000	8.9	13.0	13.2	1.4	1.4	0.9	0.9	4.0	4.1	3.9	3.9	10.2	10.2
	KT	44,300	8.1	19.4	20.0	1.3	1.5	0.8	1.0	4.0	4.3	3.5	3.3	6.3	7.9
	LG유플러스	10,040	3.2	10.4	10.6	0.7	0.7	0.4	0.4	2.6	2.6	2.8	2.8	6.7	6.8
미국	AT&T	22.1	158.7	122.1	123.9	23.3	25.7	16.0	16.1	44.8	46.1	6.7	6.5	13.6	13.9
	Verizon	41.4	174.1	134.6	137.3	30.0	32.1	18.7	19.7	48.7	49.9	6.6	6.4	19.3	18.7
	T-Mobile	223.3	259.1	80.9	84.8	17.8	19.3	11.0	12.0	31.7	33.3	10.6	10.1	17.5	20.6
일본	NTT	147	87.3	84.3	89.1	12.4	11.9	8.1	7.4	22.2	22.3	7.2	7.3	14.4	11.6
	KDDI	4,760	68.2	37.5	38.5	6.8	7.3	4.4	4.6	11.5	11.9	7.4	7.3	13.4	13.3
	Softbank	8,964	86.2	43.7	46.6	3.8	7.0	-1.8	2.1	10.8	12.8	18.8	16.2	0.1	1.8
중국	China Mobile	71.6	202.4	146.4	151.8	21.2	22.4	19.5	20.5	48.6	50.1	3.5	3.4	10.2	10.4
	China Unicom	6.8	26.9	54.2	55.9	2.5	2.9	2.9	3.2	14.3	14.5	1.5	1.5	5.8	6.2
	China Telecom	4.5	77.8	74.6	77.6	5.9	6.4	4.6	5.0	20.0	20.8	3.8	3.7	7.3	7.7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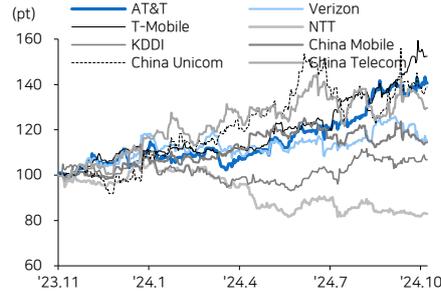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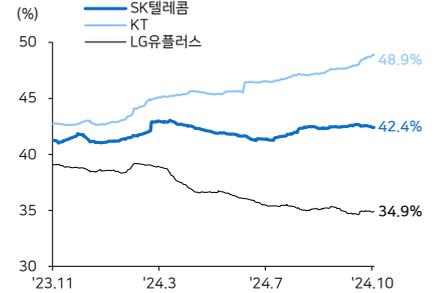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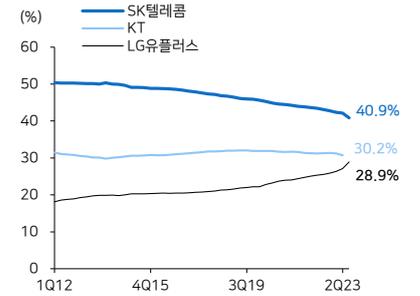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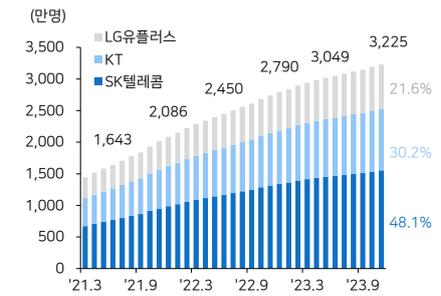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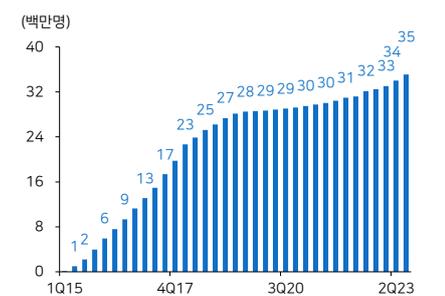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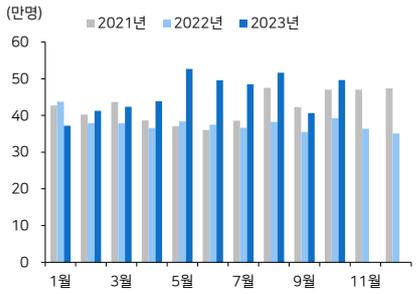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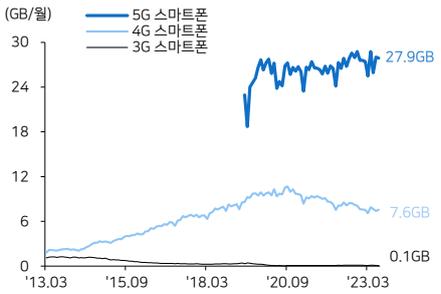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